



도민들 일상도 바꿔 놓은 코로나19 사태

어린이집·공공도서관·체육관 문닫는 기간 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 길어져 도민 삶 패턴 변화
먹거리·생필품 대량 구매… 온라인 배달도 애용

제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일로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이 바뀌고 있다.

도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며, 건물 입구에는 손 소독제 비치와 이를 뿌려주는 담당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손 씻기 등 코로나 감염 예방 위생수칙 방송과 포스터, 현수막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6일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504곳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오는 8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쓰거나 친지 등에게 부탁하는 부모들이 늘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윤모(34)씨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남편과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쓰고 그렇지 못하는 날에는 부모님께 잠시 아이를 맡기고 있다”며 “사정이 어쩔 수 없는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도 된다고는 하지만, 혹시 모를 감염의 위험 때문에 최대한 직접 돌보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휴원과 함께 공공도서관·체육관 휴관 등으로 인해 가정

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을 보는 유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윤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또 외식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집에서 삼시 세끼를 준비하는 것도 큰 고민”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트에 장을 보러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달을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사제기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한 번에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대량 구매해가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밖을 자주 돌아다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하기 전쟁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지인들끼리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살 수 있는 장소가 자주 공유되기도 한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달 28일 정부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도내 읍면 소재 우체국 18개소에서 마스크 7000장을 판매했으나,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



1일 제주시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출입구에서 입장하는 손님들의 카트와 손에 소독제를 뿌려주고 있다. (사진 위). 1일 제주시 한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대체하고, 일부 교인들이 나와 차량을 통제하며 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람들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수량이 한정된 것은 어쩔 수 없

다”며 “제주지역에는 매일 7000장의 마스크가 공급될 예정이며 안내문 공지 등을 통해 구입 시 도민들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미서훈 독립운동가 4명 서훈 신청

고(故) 이신호씨 등 4명 대상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독립운동가 4명에 대한 서훈을 제주도보훈청에 신청했다.

제주 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신호씨, 고(故) 좌행옥씨, 고(故) 김흥규씨, 고(故) 강일민씨 등 4명에 대한 독립운동가 서훈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들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며 “해방 이후 행적에 관계없이 모든 독립운동가가 서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천위는 신청한 서훈 대상자가 4·3의 광풍 속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북한으로 탈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천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 항일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애국지사 서훈을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발족했다.

이상민기자

전 남편 살해 고유정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받아… 검찰도 항소

전 남편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1심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도 고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 중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고씨가 두 사건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또 그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마스크 매점매석 30대 중국인 적발

보건용 마스크 6000개
中 밀반출하려다 적발

제주에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30대 중국인이 달미를 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B(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중순 현금 1140만원으로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구입한 뒤 중국으로 반입하려고 했다. 당시 중국 현지에서는 마스크 값이 1개당 최대 1만원까지 치솟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달 26일부터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B씨는 계획을 수정, 국내 인터넷 사이트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중국인 B씨로부터 압수한 마스크.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를 통해 1개당 2000원씩 총 3570개(714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2430장은 차량과 제주시 소재 자택에 보관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B씨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었으며, 마스크는 타 지역에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일부터 봄철기간 들불화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들불 피해 화재 건수는 195건으로 건조한 봄철인 3~5월에 99건으로 절반 이상 집중됐으며, 4명의 인명피해와 1억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농업 부산물 소각 등 144건(74%)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들불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을 지역 방송사 자막과 재난문자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돈만 받고 잠적’ 마스크 사기 범죄 기승

허위 판매글 올려 1억7000만원 가로챈 중국인 구속
도민 피해 발생 직거래사이트 사기 용의자 추적중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A(33)씨를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는 이달초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스크 수십만개를 판매하겠다고는 광고 글을 올려 피해

자 4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과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회사에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마스크 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600~900장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도민 3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용의자 중 한명은 도민 2명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 사기를 저질렀으며 피해자 3명이 사기를 당한 금액은 350만원 정도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도 3건의 마스크 사기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 사기 등을 각종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농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페르카*

강력한 라인효과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취급 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염면 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제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0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주간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노지감귤: 봄 비료 주기 3월 상순~중순
○ 풍작 예상 감귤원: 전정시기를 앞당겨 2월 하순~3월 상순 실시
- 전체 전정량의 20~30% 절단전정 위주 강전정 실시
○ 흉작 예상 감귤원: 4월 상순 이후 꽃봉오리 발생 상황 보면서 실시
- 가벼운 솜유전정, 과경지 처리로 충실한 결과모지 확보

□ 월동무, 당근: 적기수확
○ 깨짐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맑은 날 수확 충분한 예조 후 포장작업
○ 저장용 무는 저장성 높이기 위해 기온이 올라가기 전 수확 마무리

□ 양배추, 브로콜리: 적기수확
○ 구 크기가 고르지 못한 포장 부분 선택 수확

□ 마늘, 양파, 쪽파: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썩음 등 병해충 방제
○ 온도 상승과 잦은 비날씨가 이어지면 병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시 예찰 실시 방제
○ 구쪽파, 만생양파는 노균병 확산방지를 위해 조기 약제방제 실시
○ 구쪽파는 옷자람 방지 위해 칼슘 함유된 제4종복비 살포

□ 감자
○ 겨울감자: 새순이 나오는 시기 멀칭비닐 구멍 뚫기 작업
- 서리 등 피해포장은 생육촉진 요소 0.2%의 또는 제4종복비 염면살포
○ 봄감자: 2월 중순 ~ 3월 상순 파종
- 밑거름(kg/10a): 퇴비 1,500, 요소 22, 용성인비 50, 염화加里 20

□ 옥수수 육묘관리: 주간 25~30℃, 야간 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
○ 단옥수수 정식: 3월 상순~중순, 본엽 3~4매
- 밑거름: 퇴비 1,500, 요소 30, 용성인비 30, 염화加里 30/10a
○ 단호박 정식: 3월 중순~하순, 본엽 4~5매
- 밑거름: 퇴비 1,500, 요소 37, 용성인비 75, 염화加里 34/10a

□ 시설채소: 젖빛곰팡이병, 균핵병, 총채벌레 등 병해충 방제
○ 야간 최저온도 파쇄류 12℃ 이상, 염류류 8℃ 이상 유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760-7561)